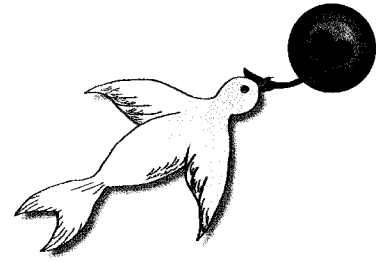


당뇨와 싸움꾼[▲]

당뇨에 좋다는 기능식품과 무지



글 / 장일환·당뇨병 10년차

당뇨와 친구가 되면서 많은 건강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니 그 건강식품이 완치에 길을 열어 줄 것 같은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내겐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이었다.

홍삼엑기스부터 뽕나무 뿌리까지 거의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의 실천에 이바지하신 분들이 계시다. 우리 모친과 장모님은 그야말로 당뇨에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도 모르게 무수히 많이 먹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 홍삼 엑기스를 3개월 치를 꾸준히 정성껏 먹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고 지금은 내 눈 자식이지만 그 때만해도 온갖 정성을 그야말로 왕대접을 받았다.

여기에 기능식품 아니 민간요법을 이야기하면 따라 할 분이 계실 것 같아 몇 가지만 얘기하겠다.

뽕잎은 물 먹듯이 먹었고, 누에가루에 하얀 코스모스 뿌리 차도 거의 물 마시 듯 먹었다. 몸에 좋다면 아니 당뇨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먹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뇨를 완치할 목적으로 먹고 마셨다.

한마디로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 결과가 보기 좋게 장애인이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만들었다. 불행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대장까지 잘라내고 화장실 다니기가 힘에 부치는 날도 연속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 제일로 많이 먹은 것은 홍삼과 누에가루이다.

어디서 구해 오시는지 두 분이 번갈아 준비해 주시는 덕분에 아마 남들 10년을 먹을 걸 난 1년에 소화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홍삼 엑기스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 그로 인해 남들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은 합병증이 일 년 만에 온 것이라 지금 추정한다.

정확히 말하면 혈당체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 온 홍삼 자체보다는 다른 한약제로 인하여 아마 혈당을 많이 올려서 합병증이 빨리 온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인슐린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고 하길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때는 약 먹고 몸에 좋은 민간요법이 당뇨를 치료하리란 믿음 하나로 살아왔던 때다. 당뇨에 좋은 건 다 먹었다.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뿌리, 줄기, 열매, 누에 등 민간요법에 몰입하며 거의 맹신하며 살았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합병증으로 찾아왔다.

진작 인슐린으로 혈당을 붙잡았으면 합병증에 시달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냥 맹신하듯 민간요법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약값이 한달 치 100만원을 넘는 한약도 먹었다. 염소똥 같은 환을 한꺼번에 50알을 먹은 적도 있다.

혈당체크도 전혀 하지 않고 먹었으니 그 속인들 편할리 있으며 췌장인들 편할 날이 있었겠는가. 그저 혹사시키는 일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도 하고 하니 몸은 쇠퇴하고 180cm의 키에 몸무게가 42kg 이라는 기록적인 몸매를 자랑했다.

췌장도 무지에서 잘라냈고 몸도 무지에서 스스로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무식이 죄가 된 꼴이었다.

누군가 수술을 한 번이라도 만류했더라면 아마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누구도 내 선택에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때는 건강이라면 자신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내가 건강을 잃어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매일 죽고 싶고 눈물만 나왔다.

그 당시는 단지 억울하다는 생각 뿐 아무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지금은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고 부터는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살도 많이 오른 편이다. 당뇨로 돈도 많이 썼고 가끔씩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를 희망이란 끈으로 일으켜 세운다.

진정 훌륭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꽃피는 춘삼월에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